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가구형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최령¹, 황병덕^{2*}

¹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²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Effects of Household Type by Public Pension Income Level on Life Satisfaction

Ryoung Choi¹, Byung Deog Hwang^{2*}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²Department of HC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College of Health Sciences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retirees(n=1,919) i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using the 2015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collec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Methods:** Frequency analysis and χ^2 -test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 betwee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 retirees.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Results:** Public pension incom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life satisfaction, economic, health, and life in multi-person households. **Conclusio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selective insurance benefit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type of household. Moreover a policy for expand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needed.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Retirees, Household Type, Public Pension

‡ Corresponding author : Byung Deog Hwang(suamsam@naver.com) Department of HC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College of Health Sciences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R1G1A10024850).

• Received : Jul 8, 2019

• Revised : Oct 3, 2019

• Accepted : Feb 17, 2020

I. 서론

Statistics Korea(2014)[1]에 의하면 향후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ers)가 고령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노년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 22.1명에서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 2050년 71.0명 그리고 2060년 80.6명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유럽의 경우 2030년 36.0명, 2050년 47.1명, 북아메리카의 경우 2030년 33.2명, 2050년 36.1명으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선진국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일반가구 가운데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사 및 취침 등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이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급증, 2015년에는 27.2%,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하였다. 일반가구가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2017년 1,967만 가구로 37.5% 증가하는 동안, 1인 가구는 2000년 200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하였다[2].

은퇴는 중년에서 고령자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년기 대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특히,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소득보장은 안정적인 노년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일정 수준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연금제도이다. 공적연금액은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질병과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노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생의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며[3], 각자의 기대 수준과 이러한 기대 수준이 사회적 조건 및 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4]. 더욱이 노년기는 다양한 역할로부터 점차 철수하고, 일상생활에서 활동수준을 줄여 나가는 시기이다. 특히 은퇴와 함께

노년기에 접어들면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적합한 대체역할을 찾아 적응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까지 직업적 지위로서 추구하였던 자아정체감의 유실과 같은 심리적 위기감을 맞이할 수도 있다[5].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eong & Jeong[6]은 60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 Cho[7]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재정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Won & Kim[8]은 한국복지패널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검진 횟수, 만성질환 수, 개인연금, 주관적 건강인식, 공적연금, 주택소유여부, 총 생활비,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Choi & Hwang[9]은 국민노후보장패널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연연금수급대사자의 은퇴후 생활만족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연금수급자는 지출규모가 많은 경우, 일상 및 사회생활제한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의료비지출비용이 평균이상인 경우, 특수직연연금수급자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지출규모가 많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Hansson et al.[10]은 스웨덴의 건강, 노화, 은퇴에 관한 조사사료를 활용하여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원이 있는 경우,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Hee[11]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 근로소득의 증가는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산소득액과 공적이전소득액이 증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Dingemans & Henkens(2019)[12]는 유럽국가의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유럽의 건강, 노화, 은퇴에 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활동 제한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Kim[13]은 고령화 연구패널자료 2,3,4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 가구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노인 부부가구일수록, 주택을 자가 소유 했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 변화율은 노인 부부가구가 노인 1인가구보다, 생활수준 기대감이 낮을수록 변화율이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 은퇴자의 건강 및 질병이완, 1인 가구에 국한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특히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은퇴 이후 소득 상실과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노후 소득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적연금소득을 활용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

도(경제적, 건강, 생활전반)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1인 가구와 다인가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삶의 만족도(경제적, 건강, 생활전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삶의 만족도(경제적, 건강, 생활전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Model 1(공적연금소득)과 Model 2(일반적 특성+공적연금소득)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은퇴자의 가구 구조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위한 정책마련과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재조명 및 연금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2015년(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연금 및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자 및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무응답 및 결측 처리를 제외한 1인 가구 554명, 다인가구 1,365명 총 1,919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측정변수

1) 삶의 만족도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귀하는 현재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조사내용이 있다. 항목은 “현재 경제적 상태”, “현재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 전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경제적”, “삶의 만족도: 건강”, “삶의 만족도: 생활전반”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응답은 불만족과 만족으로 가변수(dummy) 처리하여 재구성하였다.

2) 자산

은퇴자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산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4]. 국민연금패널자료에 의하면 가구자산을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은 소유주택, 소유 사업체, 기타 소유 부동산, 임차 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다. 금융자산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불입액, 적립펀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이 있습니까?”라는 조사내용 활용하였다.

3) 공적연금소득

우리나라는 은퇴 후 소득중단 내지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노후에 최저소득 미만으로 전락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15], 안정적인 노후 삶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며, 은퇴자들의 일정 수준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노년을 맞이하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예비은퇴자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연금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연금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을 위협한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공적연금소득과 관련하여 “귀하는 현재 공적연금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조사내용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4) 은퇴

일반적으로 은퇴란 연금을 받는 시점[16],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중지하면서 수입의 근원이 봉급에서 연금으로 바뀌는 시점[17] 그리고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이 직업 활동을 종결한 상태[18]로 정의하고 있다. Won & Kim[8]은 은퇴자의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은퇴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간 일반적 특성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χ^2 -test를 하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명확하게 위하여 Model 1(공적연금소득)과 Model 2(일반적 특성+공적연금소득)로 분석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을 산출하였다. 모든 검정을 $p=.05$ 에 대해 유의성을 검토하고, 유의수준은 95% 신뢰구간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삶의 만족도 관련성: 경제적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경제적)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가구의 경우 “성별”은 남자 19.2%, 여자 11.0%,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 43.8%, 고등학교 18.6%, 초

<Table 1>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economic) (Unit: N, %)

Division		One-person Household						Multi-person Household					
		Dissatisfied		Satisfied		Total		Dissatisfied		Satisfied		Total	
		N	%	N	%	N	%	N	%	N	%	N	%
Sex	Male	59	80.8	14	19.2	73	100.0	486	79.2	128	20.8	614	100.0
	Female	428	89.0	53	11.0	481	100.0	608	81.0	143	19.0	751	100.0
		3.969*						.692					
Age(years)	55-64	169	88.9	21	11.1	190	100.0	571	79.0	152	21.0	723	100.0
	65-74	266	87.2	39	12.8	305	100.0	438	81.7	98	18.3	536	100.0
	≥75	52	88.1	7	11.9	59	100.0	85	80.2	21	19.8	106	100.0
	χ^2	.334						1.45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00	89.5	47	10.5	447	100.0	676	85.4	116	14.6	792	100.0
	Middle school	43	89.6	5	10.4	48	100.0	194	79.8	49	20.2	243	100.0
	High school	35	81.4	8	18.6	43	100.0	156	71.9	61	28.1	217	100.0
	≥College	9	56.3	7	43.7	16	100.0	68	60.2	45	39.8	113	100.0
	χ^2	17.972***						51.128***					
Physical health status	Not good	338	89.7	39	10.3	377	100.0	697	88.7	89	11.3	786	100.0
	Normal	117	88.0	16	12.0	133	100.0	281	75.5	91	24.5	372	100.0
	Good	32	72.7	12	27.3	44	100.0	116	56.0	91	44.0	207	100.0
	χ^2	10.621**						116.518***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ot good	136	89.5	16	10.5	152	100.0	300	88.2	40	11.8	340	100.0
	Normal	226	91.5	21	8.5	247	100.0	498	85.4	85	14.6	583	100.0
	Good	125	80.6	30	19.4	155	100.0	296	67.0	146	33.0	442	100.0
	χ^2	11.035**						72.411***					
Number of chronic illnesses	1	168	87.5	24	12.5	192	100.0	431	77.9	122	22.1	553	100.0
	2	181	88.7	23	11.3	204	100.0	348	80.0	87	20.0	435	100.0
	3	91	88.3	12	11.7	103	100.0	204	82.6	43	17.4	247	100.0
	≥4	47	85.5	8	14.5	55	100.0	111	85.4	19	14.6	130	100.0
	χ^2	.489						4.870					
Status of limitation in daily life, social activity	Limiteds	69	88.5	9	11.5	78	100.0	190	88.4	25	11.6	215	100.0
	Not limiteds	418	87.8	58	12.2	476	100.0	904	78.6	246	21.4	1,150	100.0
	χ^2	.260						10.851***					
Financial assets	Yes	235	82.2	51	17.8	286	100.0	372	73.2	136	26.8	508	100.0
	No	252	94.0	16	6.0	268	100.0	722	84.2	135	15.8	857	100.0
	χ^2	18.312***						24.338***					
Property	Yes	382	85.5	65	14.5	447	100.0	543	77.7	156	22.3	699	100.0
	No	105	98.1	2	1.9	107	100.0	551	82.7	115	17.3	666	100.0
	χ^2	13.041***						5.467*					
Public pension income	Yes	113	85.0	20	15.0	133	100.0	312	73.2	114	26.8	426	100.0
	No	374	88.8	47	11.2	421	100.0	782	83.3	157	16.7	939	100.0
	χ^2	1.427						18.567***					
Total		487	87.9	67	12.1	554	100.0	1,094	80.1	271	19.9	1,365	100.0

*p <.05, **p <.01, ***p <.001

등학교 이하 10.5% 순으로 만족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27.3%,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19.4%,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17.8%, “부동산자산보유”는 있다 14.5%에서 만족하였으며, 성별,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금융자산보유 그리고 부동산자산보유는 삶의 만족도(경제적)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의 경우 “교육수준”은 대학교이상 39.8%, 고등학교 28.1%, 중학교 20.2% 순으로 만족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44.0%,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33.0%,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다 21.4%,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26.8%, “부동산자산보유”는 있다 22.3%, “공적연금소득”은 있다 26.8%에서 만족하였으며,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 부동산자산보유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도(경제적)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2. 삶의 만족도 관련성: 건강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건강)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성별”은 남자 16.4%, 여자 8.3%,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45.5%,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18.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다 10.5%,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13.3%에서 만족하였으며, 성별,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는 삶의 만족도(건강)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의 경우 “연령”은 55~64세 17.7%, 65~74세 12.7%, “교육수준”은 대학교이상 28.3%, 고등학교 25.3%, 중학교 13.6%,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56.0%,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30.3%, “만성질환 수”는 1개 21.3%, 2개 13.8%, 3개 8.1% 순으

로 만족하였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다 17.4%,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17.7%, “공적연금소득”은 있다 19.7%에서 만족하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도(건강)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삶의 만족도 관련성: 생활전반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생활전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가구의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43.2%,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31.0%,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다 18.7%,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24.1%에서 만족하였으며,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는 삶의 만족도(생활전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의 경우 “연령”은 55~64세 30.2%, 65~74세 22.2%, “교육수준”은 대학교이상 48.7%, 고등학교 32.7%, 중학교 25.5%,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62.3%,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48.2%, “만성질환 수”는 1개 31.3%, 2개 25.7%, 3개 23.1% 순으로 만족하였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은 없다 29.5%, “금융자산보유”는 있다 32.5%, “공적연금소득”은 있다 30.5%에서 만족하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 금융자산보유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도(생활전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4.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health) (Unit: N, %)

Division		One-person Household						Multi-person Household					
		Dissatisfied		Satisfied		Total		Dissatisfied		Satisfied		Total	
		N	%	N	%	N	%	N	%	N	%	N	%
Sex	Male	61	83.6	12	16.4	73	100.0	513	83.6	101	16.4	614	100.0
	Female	441	91.7	40	8.3	481	100.0	646	86.0	105	14.0	751	100.0
	χ^2	4.916*						1.606					
Age(years)	55-64	170	89.5	20	10.5	190	100.0	595	82.3	128	17.7	723	100.0
	65-74	275	90.2	30	9.8	305	100.0	468	87.3	68	12.7	536	100.0
	≥75	57	96.6	2	3.4	59	100.0	96	90.6	10	9.4	106	100.0
	χ^2	2.857						8.918*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08	91.3	39	8.7	447	100.0	706	89.1	86	10.9	792	100.0
	Middle school	44	91.7	4	8.3	48	100.0	210	86.4	33	13.6	243	100.0
	High school	38	88.4	5	11.6	43	100.0	162	74.7	55	25.3	217	100.0
	≥College	12	75.0	4	25.0	16	100.0	81	71.7	32	28.3	113	100.0
	χ^2	5.133						44.742***					
Physical health status	Not good	364	96.6	13	3.4	377	100.0	743	94.5	43	5.5	786	100.0
	Normal	114	85.7	19	14.3	133	100.0	325	87.4	47	12.6	372	100.0
	Good	24	54.5	20	45.5	44	100.0	91	44.0	116	56.0	207	100.0
	χ^2	86.683***						329.380***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ot good	142	93.4	10	6.6	152	100.0	316	92.9	24	7.1	340	100.0
	Normal	233	94.3	14	5.7	247	100.0	535	91.8	48	8.2	583	100.0
	Good	127	81.9	28	18.1	155	100.0	308	69.7	134	30.3	442	100.0
	χ^2	19.148***						118.479***					
Number of chronic illnesses	1	167	87.0	25	13.0	192	100.0	434	78.5	119	21.5	553	100.0
	2	184	90.2	20	9.8	204	100.0	375	86.2	60	13.8	435	100.0
	3	99	96.1	4	3.9	103	100.0	227	91.9	20	8.1	247	100.0
	≥4	52	94.5	3	5.5	55	100.0	123	94.6	7	5.4	130	100.0
	χ^2	7.691						37.390***					
Status of limitation in daily life, social activity	Limiteds	76	97.4	2	2.6	78	100.0	209	97.2	6	2.8	215	100.0
	Not limiteds	426	89.5	50	10.5	476	100.0	950	82.6	200	17.4	1,150	100.0
	χ^2	4.968*						30.134***					
Financial assets	Yes	248	86.7	38	13.3	286	100.0	418	82.6	90	17.7	508	100.0
	No	254	94.8	14	5.2	268	100.0	741	86.5	116	13.5	857	100.0
	χ^2	10.575**						4.351*					
Property	Yes	401	89.7	46	10.3	447	100.0	586	83.8	113	16.2	699	100.0
	No	101	94.4	6	5.6	107	100.0	573	86.0	93	14.0	666	100.0
	χ^2	2.226						1.291					
Public pension income	Yes	116	87.2	17	12.8	133	100.0	342	80.3	84	19.7	426	100.0
	No	386	91.7	35	8.3	421	100.0	817	87.0	122	13.0	939	100.0
	χ^2	2.373						10.345**					
Total		502	90.6	52	9.4	554	100.0	1,159	84.9	206	15.1	1,365	100.0

*p <.05, **p <.01, ***p <.001

<Table 3> Relevance of life satisfaction(overall life) (Unit: N, %)

Division		One-person Household						Multi-person Household					
		Dissatisfied		Satisfied		Total		Dissatisfied		Satisfied		Total	
		N	%	N	%	N	%	N	%	N	%	N	%
Sex	Male	59	80.8	14	19.2	73	100.0	453	73.8	161	26.2	614	100.0
	Female	400	83.2	81	16.8	481	100.0	552	73.5	199	26.5	751	100.0
χ^2		.244						.013					
Age(years)	55-64	156	82.1	34	17.9	190	100.0	505	69.8	218	30.2	723	100.0
	65-74	252	82.6	53	17.4	305	100.0	417	77.8	119	22.2	536	100.0
	≥75	51	86.4	8	13.6	59	100.0	83	78.3	23	21.7	106	100.0
	χ^2	.621						11.31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376	84.1	71	15.9	447	100.0	620	78.3	172	21.7	792	100.0
	Middle school	41	85.4	7	14.6	48	100.0	181	74.5	62	25.5	243	100.0
	High school	32	74.4	11	25.6	43	100.0	146	67.3	71	32.7	217	100.0
	≥College	10	62.5	6	37.5	16	100.0	58	51.3	55	48.7	113	100.0
	χ^2	7.542						42.372***					
Physical health status	Not good	328	87.0	49	13.0	377	100.0	676	86.0	110	14.0	786	100.0
	Normal	106	79.7	27	20.3	133	100.0	251	67.5	121	32.5	372	100.0
	Good	25	56.8	19	43.2	44	100.0	78	37.7	129	62.3	207	100.0
	χ^2	26.492***						207.016***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ot good	137	90.1	15	9.9	152	100.0	304	89.4	36	10.6	340	100.0
	Normal	215	87.0	32	13.0	247	100.0	472	81.0	111	19.0	583	100.0
	Good	107	69.0	48	31.0	155	100.0	229	51.8	213	48.2	442	100.0
	χ^2	29.561***						168.119***					
Number of chronic illnesses	1	157	81.	35	18.2	192	100.0	380	68.7	173	31.3	553	100.0
	2	169	82.8	35	17.2	204	100.0	323	74.3	112	25.7	435	100.0
	3	88	85.4	15	14.6	103	100.0	190	76.9	57	23.1	247	100.0
	≥4	45	81.8	10	18.2	55	100.0	112	86.2	18	13.8	130	100.0
	χ^2	.684						18.844***					
Status of limitation in daily life, social activity	Limiteds	72	92.3	6	7.7	78	100.0	194	90.2	21	9.8	215	100.0
	Not limiteds	387	81.3	89	18.7	476	100.0	811	70.5	339	29.5	1,150	100.0
	χ^2	5.713**						36.242***					
Financial assets	Yes	217	75.9	69	24.1	286	100.0	343	67.5	165	32.5	508	100.0
	No	242	90.3	26	9.7	268	100.0	662	77.2	195	22.8	857	100.0
	χ^2	20.261***						15.539***					
Property	Yes	365	81.7	82	18.3	447	100.0	502	71.8	197	28.2	699	100.0
	No	94	87.9	13	12.1	107	100.0	503	75.5	163	24.5	666	100.0
	χ^2	2.332						2.416					
Public pension income	Yes	105	78.9	28	21.1	133	100.0	296	69.5	130	30.5	426	100.0
	No	3564	84.1	67	15.9	421	100.0	709	75.5	230	24.5	939	100.0
	χ^2	1.878						5.473*					
Total		459	82.9	95	17.1	554	100.0	1,005	73.6	360	26.4	1,365	100.0

*p <.05, **p <.01, ***p <.001

공적연금소득 변수만을 이용한 <Model 1>의 삶의 만족도(경제적)의 경우 다인가구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는데 비해 있다(OR=1.820[95% CI=1.383-2.395])에서, 삶의 만족도(건강)의 경우 다인가구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는데 비해 있다(OR=1.645[95% CI=1.212-2.232])에서, 삶의 만족도(생활전반)의 경우 다인가구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는데 비해 있다(OR=1.354[95% CI=1.050-1.746])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특성과 공적연금소득 변수를 이용한 <Model 2>의 삶의 만족도(경제적)는 “연령”의 경우 다인가구는 55~64세(OR=.550[95% CI=.306-.985])에 비해 75세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1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OR=1.354[95% CI=1.050-1.746])에서, 다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OR=1.908[95% CI=1.267-2.875]), 대학교 이상(OR=2.639[95% CI=1.599-4.353])에서,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좋지않다(OR=.276[95% CI=.177-.430])와 보통(OR=.661[95% CI=.434-1.006])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 좋지않다(OR=.628[95% CI=.391-1.008])와 보통(OR=.506[95% CI=.355-.722])에 비해 좋다에서, “금융자산보유”의 경우 1인 가구는 없는데 있다(OR=3.016[95% CI=1.630-5.579])에서, “부동산보유”의 경우 없는데 비해 있다(OR=9.032[95% CI=2.077-39.286])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2>의 삶의 만족도(건강)는 “교육수준”의 경우 다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OR=1.989[95% CI=.177-.430])에서,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1인 가구는 좋지않다(OR=.062[95% CI=.022-.173])와 보통(OR=.285[95% CI=.115-.709])에 비해 좋다에서, 다인가구는 좋지않다(OR=.082[95% CI=.049-.139])와 보통(OR=.172[95%

CI=.108-.275])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보통(OR=.485[95% CI=.313-.752])에서, “만성질환 수”의 경우 4개 이상에 비해 1개(OR=2.486[95% CI=1.049-5.896])에서, “금융자산보유”의 경우 1인 가구는 없는데 비해 있다(OR=2.588[95% CI=1.263-5.303])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2>의 삶의 만족도(생활전반)는 “교육수준”의 경우 다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OR=2.365[95% CI=1.437-3.891])에서,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좋지않다(OR=.235[95% CI=.155-.355])와 보통(OR=.529[95% CI=.353-.794])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 1인가구는 좋지않다(OR=.365[95% CI=.176-.759])와 보통(OR=.416[95% CI=.236-.735])에 비해 좋다에서, 다인가구는 좋지않다(OR=.332[95% CI=.211-.522])와 보통(OR=.372[95% CI=.270-.513])에 비해 좋다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의 경우 다인가구는 있다(OR=.556[95% CI=.332-.933])에 비해 없는데에서, “금융자산보유”의 경우 1인가구는 없는데 비해 있다(OR=2.743[95% CI=1.638-4.594])에서, 다인가구는 없는데 있다(OR=1.339[95% CI=.992-1.808])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IV. 고찰

본 연구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경제적, 건강, 생활전반에 주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구구조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영향 유무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과 연금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Division			Life Satisfaction					
			Economical		Health		Overall life	
			One-person Household (OR)	Multi-person Household (OR)	One-person Household (OR)	Multi-person Household (OR)	One-person Household (OR)	Multi-person Household (OR)
Model 1	Public pension income	Yes	1.408	1.820***	1.616	1.645**	1.409	1.354*
		No	1	1	1	1	1	1
	Waldχ ² -2LogL		1.367 407.254	17.879*** 1342.657	2.228 342.787	9.961** 1148.363	1.810 505.904	5.385** 1569.630
Model 2	Sex	Male	1.210	.566*	1.491	.919	.751	.651*
		Female	1	1	1	1	1	1
	Age(years)	55-64	.574	.550*	2.881	1.186	.825	.908
		65-74	.815	.702	2.724	1.371	1.000	.820
		≥75	1	1	1	1	1	1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1	1	1	1	1	1
		Middle school	.928	1.359	.886	1.063	1.030	1.081
		High school	2.109	1.908**	1.773	1.989**	2.072	1.438
		≥College	4.781*	2.639***	1.515	1.651	2.128	2.365**
	Physical health status	Not good	.591	.276***	.062***	.082***	.423	.235***
		Normal	.596	.661*	.285**	.172***	.524	.529**
		Good	1	1	1	1	1	1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ot good	.546	.628*	1.381	.828	.365**	.332***
		Normal	.449*	.506***	.602	.485**	.416**	.372***
		Good	1	1	1	1	1	1
	Number of chronic illnesses	1	.669	.955	1.956	2.486*	1.103	1.554
		2	.742	1.125	1.419	1.993	.996	1.574
		3	.774	.993	.810	1.152	.977	1.491
		≥4	1	1	1	1	1	1
	Status of limitation in daily life, social activity	Limiteds	.372	.848	.472	.339*	.586	.556*
Not limiteds		1	1	1	1	1	1	
Financial assets	Yes	3.016***	1.542**	2.588**	.977	2.743***	1.339*	
	No	1	1	1	1	1	1	
Property	Yes	9.032**	1.064	1.199	.729	1.299	1.060	
	No	1	1	1	1	1	1	
Public pension income	Yes	.968	1.466*	1.076	1.147	1.174	1.201	
	No	1	1	1	1	1	1	
Waldχ ² -2LogL		58.045*** 350.575	166.587*** 1193.948	81.189*** 263.826	299.956*** 858.367	59.953*** 447.760	275.720*** 1299.295	

Note: *p <.05, **p <.01, ***p <.001, OR=odds ratio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하여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1인가구는 성별($p<.05$),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상태($p<.01$), 심리적 건강상태($p<.01$), 금융자산보유($p<.001$) 그리고 부동산자산보유($p<.001$), 다인가구는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01$), 금융자산보유($p<.001$), 부동산자산보유($p<.001$) 그리고 공적연금소득($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성별($p<.05$),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5$) 그리고 금융자산보유($p<.01$), 다인가구는 연령($p<.05$),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 만성질환 수($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01$), 금융자산보유($p<.05$) 그리고 공적연금소득($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전반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1$) 그리고 금융자산보유($p<.001$), 다인가구는 연령($p<.01$), 교육수준($p<.001$), 신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 만성질환 수($p<.0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p<.001$), 금융자산보유($p<.001$) 그리고 공적연금소득($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6],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공적연금보유[19], 교육수준과 주거형태, 가구원수, 경상소득, 부동산자산, 총부채 그리고 금융자산[14],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수,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자산[9]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둘째,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소득 변수만을 활용한 <Model 1>은 경제적, 건강 그리고 생활전반의 삶의 만족도 모두 다인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적 만족도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1.820배($p<.001$), 건강만족도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1.645배($p<.01$) 그리고 생활전반 만족도는 공적연금소득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1.354배($p<.001$)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8][9][10].

공적연금소득과 일반적 특성을 활용한 <Model 2>는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은 4.781배($p<.05$), 심리적 건강상태가 보통에 비해 좋다에서($p<.05$), 금융자산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3.016배($p<.001$) 그리고 부동산자산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9.032배($p<.01$)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인가구는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p<.05$), 연령이 55-64세에 비해 75세 이상에서($p<.05$),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는 1.908배($p<.01$), 대학교 이상은 2.639배($p<.001$),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5$)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5$)와 보통($p<.001$)에 비해 좋다에서, 금융자산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1.542배($p<.01$)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1.466배($p<.05$) 경제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만족도의 경우 1인가구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1$)에 비해 좋다에서 그리고 금융자산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2.588배($p<.01$), 다인가구는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1.989배($p<.01$),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01$)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보통($p<.01$)에

비해 좋다에서, 만성질환 수가 4개 이상에 비해 1개에서 2.486배($p<.05$) 그리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이 있다($p<.05$)에 비해 없다에서 건강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전반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1$)와 보통($p<.001$)에 비해 좋다에서 그리고 금융자산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2.473배($p<.001$), 다인가구는 성별이 남자($p<.05$)에 비해 여자에서,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에서 2.365배($p<.01$),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1$)에 비해 좋다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않다($p<.001$)와 보통($p<.001$)에 비해 좋다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제한이 있다($p<.05$)에 비해 없다에서, 금융자산이 없는데 비해 있다에서 1.339배($p<.05$)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건강상태 및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6][7][13], 재정만족도가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7][11][10][14][20]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통계청(2014)[1] 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급감한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2002년 18.2%에서 2014년 47.3%로 급증하였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2002년 9.6%에서 2014년 16.6%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노년기 인구증가는 물론 가족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로 인하여 정년과 함께 노년기에 접어드는 은퇴자의 삶에 공적연금소득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년층의 자산은 과거에서부터 이뤄져 온 것이며, 과거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충분한 노후생활의 여력이 존재한다. 즉, 퇴직 이전의 자산형성과 노후 삶의 질이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자산소득은 노인의 부모세대로부터 이전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삶의 과정 중에 행운 등 우연적 요소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노년기의 안정적 자산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령인구의 소득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비공식적 소득이전 체계들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21].

이에 더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흔히 언급되는 근시안적 사고나 보험시장의 실패, 저축 수단의 부적절함과 불확실성 등의 문제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21]. 만일 개인의 노후를 시장경제방식에 맡긴다면 고소득자는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겠으나, 불안정한 고용 및 저소득자는 사실 노후준비가 불가능하게 되어 노후소득 및 삶의 질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잘 사는 사람(자산 축적)에게는 연금과 같은 재정적 자원은 삶의 행복과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자산이 축적되지 못한 은퇴자 및 연금소득이 낮은 은퇴자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으로 첫째, 은퇴 후 노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되어야 함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했던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및 연금구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가져야한다[23]. 둘째, 가구형태에 따라 선별적 보험급여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즉, 가구형태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함께 조세제도인 공공부조의 통합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상향됨으로서 연금수급의 공백 발생으로 안정적 소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은퇴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적절성, 지속

적인 근로 및 노동시장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정책 및 제도마련을 위한 후속 다부처·다학제간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가구구조에 따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간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건강, 생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 각각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간 삶의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영향 요인과 공적연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삶의 만족도 연구 중 각 특성별 및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결과를 고찰 및 기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2015년도 자료만을 활용함으로써 패널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자료를 활용하였지만 모든 국민의 견해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2015년(6차)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은퇴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경제적, 건강, 생활 전반) 분석하여 은퇴자의 가구구조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위한 정책마련과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재조명 및 연금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인 가구에 비해 다인 가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중지를 경험하게 된 은퇴자에게는 노후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하

며, 다인가구의 경우 가족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적 소득의 대체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후 노년의 안정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연금제도 강화와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가구형태에 따른 선별적 보험급여, 그리고 은퇴자의 고용확대 및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정책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2014), <http://kostat.go.kr/portal/korea>.
2. Statistics Korea(2018), <http://kostat.go.kr/portal/korea>.
3. J.D. Kwon, J.Y. Cho(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0(3);61-76.
4. S.J. Cho, B.S. Kim(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Self-efficiency and Mindfulnes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4(1);49-71.
5. G.Y. Jo, J.H. Lee(2013), An Analysis on Identifying Typolog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Affecting Factors among the Old Retirees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of Public Pens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17(4);189-213.
6. W.Y. Jeong, S.E. Jeoug(2012),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by Income Levels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1(4);1119-1134.

7. S.W. Kim, H.S. Cho(2012),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Finance, Health, Psychology Status of the Middle Aged and Elderly Who are Living Alone,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5(3);89-116.
8. K.H. Won, Y.H. Kim(2015), Relationship between Retirees' Subjectiv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6);225-233.
9. R. Choi, B.D. Hwang(2016),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A Comparison of Public Pension versus Specific Corporate Pension Recip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3);199-211.
10. I. Hansson, S Buratti, V. Thorvaldsson, B. Johansson, A.I. Berg(2017),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in the Retirement Transition: Interaction Effects of Transition Type and Individual Resources, *Work, Aging and Retirement*, Vol.4(4);352-336.
11. E.J. Hee(2017),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Older People's Economic the Preparations for Aging and Life Satisfaction - Active Aging as a Parameter, *GRI Review*, Vol.19(2);119-150.
12. E. Dingemans, K. Henkens(2019), Working After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Cross-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in Europe, *Research on Aging*, Vol.41(2);1-22.
13. J.H. Kim(2019), Influential Factors on th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Longitudinal Analysis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1);339-349.
14. M.J. Kwak, H.S. Lee(2015),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hysical or Psychological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8(1);1-30.
15. National Pension Service(2015), http://pensioner.nps.or.kr/html/receive_ebook/ebook.html
16. C.D. Campbell · R.G. Campbell(1976), Conflicting views on the effect of 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on retirement, *Economic Inquiry*, Vol.14;369-388.
17. R.C. Archley(1982), Retirement as Social Institu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8;263-287.
18. J.Y. Lee, D.S. Kim(2014), An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Relationship, Psychological Health, and Retirement Adjustment of Retired Couple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2);903-924.
19. M.H. Park(2016),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Late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Vol.6(2);5-26.
20. A. Gorry, D. Gorry, S.N. Slavov(2018), Does Retirement Improv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 *Health economics*, Vol.27(12);2067-2086.
21. K.J. Hong(2005), An Analysis on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Regime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1(2);77-104.
22. R. Muffels, D. Skugor, E. Dingemans(2014), If money does not buy muchhappiness, what does? A multilevel analysis on the impact of absolute and relativeincome, social values, and modern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in Europe. InL. Halman & W. Arts (Eds.), pp. 375 - 401.
23. R. Choi, B.D. Hwang(2016), Influence Factors on Health and Medical of Retirees Expense to Public Pension Recipient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5(2);80-89.